

##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1)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원정수 / 인하대 교수  
by Won Jeong-S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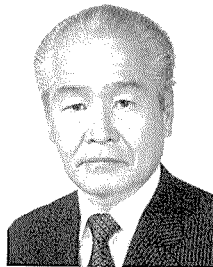
건축가 故 배기형. 그의 심미관과 독특한 건축세계는 예리한 해부학적 관점과 결부되는 구성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도 거기엔 새로움이 스며있다. 지금도 우리는 한일은행 을지로지점(1962), 한전 영월 제2화력 발전소(1962) 유네스코빌딩(1966) 등 건축사에 기록된 작품들에서 그의 건축가로서의 완숙된 건축적 기량과 높은 전문성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막상 건축가 배기형에 대한 연재를 시작하려다 보니 안타깝게도 그의 건축가로서의 행적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을뿐더러 성장과정 역시 그와 가까웠던 몇몇 분들의 증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본지는 고 배기형 선생의 문하생이었던 인하대 원정수교수의 도움을 얻어 그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찾는 일에서부터 시작해 주변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건축가로서의 역정과 작품세계를 총3회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주>

###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712)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
3. 증인들의 증언



한국의 근대 건축역사에서 건축계가 기억해야 할 훌륭한 건축가 가운데 배기형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건축가의 명성에 관심을 모으는 것은 대부분 건축작품 계열이 도시 빌딩이나 문화적 공공건물에 치중하였던 건축가의 활동상을 대상으로 하여 건축문화발전의 공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짙고 아울러 다양한 기록으로 수록되어지고 이와 반대로 구조설계가 중심이 되는 생산시설공장, 대형공간구조 등의 구조기술 해석의 소형공간물은 건축문화발전과 무관한

것으로 외면하는 분위기 때문이다. 특히 배기형이라는 건축가의 명성이 기억되지 못한 것은 철골구조로 조성되는 구조해석과 구조물이 주조가 되는 공장건축설계 작품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이라고 본다. 그러나 배기형은 많은 건축가와 사회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그의 완숙된 건축적 기량과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치밀한 내용의 설계도가 알려지면서 건축가 사회에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어졌다. 한국 건축계에서 주도적 활동을 펼치면서 건축작품의 종류도 도시의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교육 등 다양하고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다룬 작품을 남기게 되었다. 그가 남긴 작품 가운데 한국 근대건축사에 기록되는 평가를 윤일주 교수의 한국 근대 건축에 관한 논문에서 발췌하여 보면,

1958년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보라매공원. 서울)

1962년 한일은행 을지로 지점

1965년 중앙빌딩 (서소문. 서울)

1966년 유네스코 빌딩 (명동. 서울)

이상과 같이 네 개의 작품을 선정하고 있으나 공장 및 구조물 건축에 관한 것은 관심 박임을 알 수 있다. 공간지 1970년 7월호에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와 건축가 배기형을 소개하는 내용에서 주요작품년보를 보면 초기작품에서 대규모 공장건축과 특수기계를 수용하는 발전소와 같은 구조기술 해석이 특색 있는 건축물 설계작품의 실적이 많이 눈에 띈다.

〈작품 연보〉

제일제당공업주식회사 부산공장 (1953), 대한중공업공사 인천공장 (1953), 제일모직공업주식회사 대구공장 (1954), 파라마운트극장 (1957), 피카다리극장 (1958), 공군사관학교도서관 (1958), 충주비료 사택단지 (1958), K-2항공본창 (1959),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1959), UNESCO회관 (1959), 한국전력영월제2화력발전소 (1962), 제일병원 (1963), 중앙일보사옥 (1964), 한국비료독신자숙소 (1965), 동양나이론 울산공장(1966), 새한제지 전주공장 (1966), 국립건설연구소 수리시험실 (1967), 대한화심 부산공장 (1967), 한국유리 인천공장제3로, 제5로 (1968), 동광판초자 부산공장 (1969), 조달청청사 (1969).

〈현상설계 응모작품〉

충주비료사택단지 (지명, 당선, 본설계 1958), 경상북도청사 (2등입선, 1959), UNESCO회관 (지명, 당선 본설계, 1959), 국회의사당 (1959), 호남비료 독신자 숙소(지명, 당선, 본설계, 1961), 성균관대학교 교수회관 (당선, 1961), 이화여고 강당 (지명, 당선, 1962), 덕성여자대학교교사 (2등입선, 1962), 한국전력본사 사옥 (1969).

건축작품기운데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은 철거되었고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은 외관의 원형이 변형되었고 그밖에

공장건물은 철거되거나 크게 원형이 변질된 것이 많아서 현장을 답사하면서 배기형의 건축세계를 재조명하기란 매우 어렵다.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문헌자료를 찾아보면 다음 몇편에 불과하다.

• 1969년 1월호 공간 / 「심사평」 - 부산시청사 현상설계심사에 참여하고 나서

• 1970년 7월호 공간 / 현대건축가상 배기형. 설계사무소탐방-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 1983년 낙산 함성권 교수 정년 기념집 / 배기형회고담 일부 수록

• 1994년 한국현대건축 (1876~1990) 건축가협회 발행 / 배기형 해당 기록자료

• 1996년 5월호 건축가 / 특집 배기형 추모간담회 따라서 본론에서 그의 건축역사사료를 인용하여 충실한 기록을 정리하기란 매우 어렵다.

본론에서는 필자가 경험했던 옛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배기형의 측근에서 건축활동을 함께한 여러 증인의 증언을 모아서 전개할 수밖에 없다.

출생과 건축활동경력

1918년 출생하여 1979년 암으로 별세하기까지 61년 동안의 생애기운데 1938년부터 1945년 해방때까지 일본에서 건축수업을 하고 경력을 쌓았으며 한국건축계에서 본격적인 활동은 1954년 서울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고인이 작성한 이력서의 내용을 보면 그의 생애를 자세히 볼 수 있다.

1918년 1월 경남 김해읍 답곡리 출생

1935년 3월 부산공립공업학교 건축과 졸업

1938년 5월 규다이 임시고등건축강습소 입소

1939년 3월 규다이 임시고등건축강습소 졸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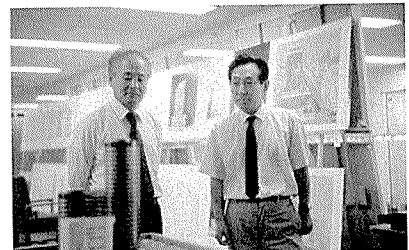
1939년 5월 후꾸오까시 니시지마 건축사무소 입소



구조사 가족



영월 발전소 설계협의회 독일방문 귀로에 아테네 파르테논신전에서. 우측이 함성권 교수이고 좌측이 배기형 선생(1962년)



한국외환은행 본점 현상설계 심사때의 배기형과 김희훈

- 1942년 8월 상사재직중 일본제철, 야하다 제철소 및 주식회사 쇼와제강소 건축 촉탁
- 1945년 8월 해방 귀국
- 1946년 1월 구조사 건축기술연구소 창립 경영
- 1954년 신건축 문화연구소 창립 김희춘, 정인국, 김창집, 함성권, 엄덕문, 배기형 합동 (필자 삽입)
- 1956년 8월 화재로 해체 (필자 삽입)
- 1958년 12월 상소 주식회사 개편 대표이사 취임
- 1958년 5월~1965년 10월 한일은행 건축촉탁
- 1962년 8월~12월 영월발전소 설계를위하여 서독 NURENBERG 소재 M.A.N.에서 현지설계 및 유럽 각국 건축계 시찰
- 1965년 7월 건축부장관으로부터 1급 건축사자격면허 수여(면허 제 1 - 382호)
- 1965년 3월~1968년 3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부회장
- 1968년 3월~1970년 3월 사단법인 한국건축가협회 회장
- 1969년 10월 세계건축가연합 (U.I.A.) 제10차 총회에 한국대표로 참가(남미 ARGENTINE.BUE-NOS AIRES)
- 1972년 3월 국제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 1976년 3월 주식회사 구조사 - 건축기술연구소 대표이사
- 1979년 4월 소장을 후진에게 인계 신임 대표이사회장 취임
- 1970년 5월~1977년 5월 한국건업주식회사고문 및 부설기술연구소 주재함
- 1977년 6월 동해팔프주식회사 건설고문
- 1979년 10월 17일 숙환으로 별세 (필자 삽입)

작품활동과 건축사무소가 성장되는 과정을 증언할 수 있는 것은 가장 가까운 친구였던 몇분의 이야기 속에서 들을 수 있을뿐 유아시절의 성장과정은 유가족에게서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증언이라야 간략한 가족환경이나 외로웠던 수도 서울



건축가협회 회장재임시 총회때 사회를 보던 모습



현장검사

에서의 가정생활 정도였다.

함성권 교수의 회고 논문집에서 배기형에 관한 몇구절을 아래에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 원래 배기형씨는 어릴적에 넉넉하지 못한데도 부산공업을 나왔고 뒤에 일본 규슈에 있는 일본 최대의 제철공장인 야하다제철소의 건축설계부에서 수련을 받은 분으로 해방후 공장설계에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한 존재였고 나는 대한중공업 평로공장설계 때에 회사측의 소개로 처음으로 알게된 뒤 앞선 여러 기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의 일생동안 친교가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 (후략)”

건축가협회 발행 한국현대건축 총논집에서는 배기형을 다음과 같이 기록 기술하고 있다 (109페이지 참조)

“신건축(신건축문화연구소지칭)의 파트너였던 배기형은 구조사를 설립하고 독립한다. 주로 국방부의 프로젝트와 삼성 그룹과 관련이 깊어 생산시설의 작업이 많았다. 당시 건축계에서 구조사의 떠오름은 그의 현실적 감각과 기술성을 디자인에 결부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 평가된다. 산업건축이외에 1960년대 후반부터는 주로 사무소 건축에서 많은 작업을 하였다.”

### 나의 스승 건축가 배기형

서울 도심 종로화신백화점 옆. 장안빌딩 3층에 있는 신축건축문화연구소에 실습생으로 나간 것이 1955년 대학 3학년때였다. 당시 한 장소에서 여러 건축가가 모여 설계하는 작업을 볼 수 있는 설계사무소는 이례적인 것이어서 건축설계를 배울수 있는 혜택과 아울러 건축가들의 사회를 볼 수있었고 한국건축계의 위상을 한눈에 보고 배우는 귀중한 기회였다. 합동으로 모인 건축가 김희춘, 정인국, 김창집의 여러분 가운데 색다르고 남다른 모습의 건축가 한분이 흥미를 끌었던것은 오로지 제도판에서 설계작도에 몰두하고 있는 배기형이었다. 언제나 작도하고 있는 원도용지가 제도판에 붙어 있었으며 흔히 보는 건축일반도 또는 단면상세도가 아닌 고난도의 철골구조 상세도의 작도솜씨여서 언제나 내 눈을 황홀하게 만들었다. 실습생이었던 필자는 꿈을 건

축가에 두었던만큼 주위에 많은 선배, 스승 건축가들중에서 이상적인 모델을 그려보곤 했고 건축가들의 건축활동상과 전문적 기량이 돋보이면, 저절로 그에게 존경심이 일어났다. 미래의 목표가 건축가가 되는 것이었고 더구나 내가 건축 작도한 내용을 지적하며 평가하여 주는 건축가 가운데 배기형의 지도가 가장 가슴에 와닿았다.

신건축문화연구소의 모임은 두차례 화재의 재난을 겪고 해체 되는데 이때 배기형은 구조사의 명의를 되살려 독자 사무소를 열었고 여기에 쫓아서 필자도 일원이 되었다. 졸업후 공군본부 시설장교로 복무하고 제대후 다시 구조사에 복직하였으며 그 뒤 인하대학으로 옮기고 나서도 배기형의 건축세계에서 마음을 떠날 수 없을 만큼 필자의 건축에 있어서의 생각과 행동은 그의 영향으로 굳어진 것을 느끼며 그럴 때 일수록 그의 위력에 경이로움과 존경심을 품게되었다.

필자는 신건축문화연구소에 여러대학에서 파견되어온 실습생들과 함께 여러 건축가들이 지시하에 건축계획 작도의 작업을 배워갔다.

김희춘의 수원농대강당, 정인국의 공군본부청사 실시설계와 주택계획 등의 일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 대학 출강의 시간이 없어 문하생이 없는 배기형의 조수 및 제자의 몫을 하게되면서 단성사 개조설계와 대구제일모직공장 확장설계에 가담하게 되었다. 또, 실감나는 현장 답사를 수행하며, 건축계획의 방향과 질적 내실을 철저히 훈련받으며 배기형의 건축활동세계로 말려들게 되었다.

이제 배기형의 건축가상을 돌이켜보면,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느낀다.

### 건축기술자인가? 건축가인가?

가장 가까운 친우 함성권 교수는 배기형을 Detailer라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를 평했다. 부정적으로 보면 당신은 건축가가 아니요라는 해석이 된다.

그래서인지 배기형이 몹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을 필자는 가끔 목격했다.

긍정적으로 보면, 어느 누구도 고차적인 기술해석의 설계도를 그려낼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경지의 건축전문인이라는 뜻이된다.

배기형을 생각하면서 전문성의 저력을 지닌 선구자적 건축가를 꿈꾸게 되는 자극을 느꼈다. 배기형은 마치 루이스 칸, 일본의 시라이 세이찌(白井晟一), 무라노 도고(村野勝吾)와 같은, 대기만성의 건축가라 할 수 있다.

### 철저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건축가

실습생시절 단성사 입면계획을 만들면서 상세처리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세밀하게 지적받으면서 실제건축 계획을 정리하는 훈련을 받은 셈이다.

극장 외관 개조는 불발된 채 극장내 2층에 100명 수용의 시사실을 계획하고 실체를 만드는 설계경험을 가졌다.

대구제일모직 공장확장계획, 삼성 이회장 동래주택 등 여러 가지 닦치는대로 배기형의 계획구상의 조수역할을 하면서 마음껏 상상력을 부풀리며, 계획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계획안이 완성되는 건물의 구체적 실체를 상상할 수 있는 훈련을 닦은 셈이었다.

당시 젊은이의 상상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주고 더욱 자신있는 건축의 실체를 만들 수 있는 저력을 키워주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배기형은 여러 건축가들과 교류하며 건축가협회 발기에 참여하는데서 건축가의 창작 본능을 발휘하기 시작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창작계획의 조형표현, 공간구성의 형식은 대부분 일본의 건축동향과 정보에서 많은 영향을 따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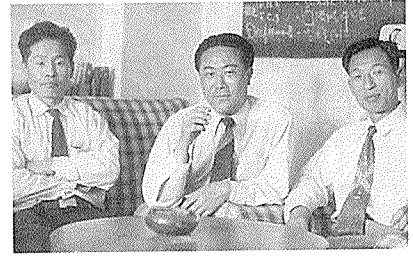
일예를 들면, 공군사관학교 체육관을 계획하면서 아취트라스구조와 조형구성을 당시 신축된 도쿄도 체육관의 아취트라스트의 조형을 우리기술로서 성취해보려는 의지에서 도전하는 것이었으므로 일부분을 모작하는 계획과 설계과정이었으나, 질적내용의 건축을 실현시키는 실험정신과 노력의 강한 투지가 옆에서 보는이들에게 크게 감동을 느끼게 했다. 이러한 단계가 쌓



야유회에서 강명구씨와 함께 배기형선생의 특유한 웃는 표정(끼끼... 옛기, 이사람)



사무실 근무 모습



신건축문화 연구소 시절

여갈수록 배기형의 독창성이 표출되는 작품을 볼 수 있게 된다.

공군사관학교 도서관은 완벽한 배기형의 조형각각의 창출이며, 보라매 공원(현재)내 언덕위에 위치한 환경과 절묘한 조화를 이뤄, 우리의 전통 풍수조형으로 보이는 환경조화의 유기적 일체감을 연출하고 있다.

이는 당시 외국풍의 꼬르뷔제제, 당계의 열풍속에서 한국건축계에 보기도문 창작력의 깨거라고 보아야 한다.

### 심미관의 자생적 특징

건축가들의 건축작품 평가의 가치기준을 생각할 때 대체로 선진국 건축가들의 생각과 동조하는 경향이 짙다. 더구나 외국을 선호하며, 동경하는 그들의 교육으로 무장된 신진건축가일수록 가치기준의 주장은 더욱 강경하다.

그러나 가치평가의 대상은 건축의 표피적이고 시각적 감지범위에서 나타난 요소만으로 모든 것이 집중되고 그치는 경향인데 반해서 배기형은 다르다.

배기형은 해부학적 내면과 구조세계를 마스터한 뒤에 건축가들의 무리속에 합류하면서 건축가로 지칭되어지는 세계로 들어선 셈이다. 마치 기술을 바탕으로한 장인(匠人)의 영향으로 건축가로 입신한 미스 반 델로예를 연상케한다.

배기형은 철골의 연결 접합 부분도 아름다움을 의식한다. 그래서 입체적 결합 구조인 다이아몬드 트라스 연구에 깊이 빠진다.

지금은 입체, 볼조인트로 발전된 소위 메로. 체계의 입체 트라스로 진화된 것을 볼 수 있다. 공간 및 조형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는 사례는 다음 작품에 관한 시리즈에서 다루기로 한다. 그의 심미관과 독특한 개성적인 세계는 예리한 해부학적 관점과 결부되는 구성에 크게 비중을 두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는 의지를 높이시며 관심이 높은 건축가이다.

공장설계에서 영향이 크게 작용한 산업의 발달과 변화를 체험하며, 이를 설계과정에서 해결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즈음에 현대건축미로 평가받는 건축구조미를 구성하는 기법을 연구한 선구적 건축가였던 셈이다.

### 생활과 인성

건축가로 서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 건축가들이 많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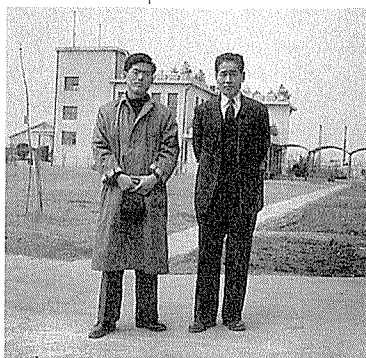
그러나 건축설계 작업에 몰두하면서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며 모든 생활이 건축과 함께 혼재되는 경지에 있으면서 건축가로 자처하지 않은 건축가가 있다면 바로 배기형이다.

필자가 건축에 입문하면서 배기형의 건축세계를 보면서 존경과 매력을 갖게된 것은 건축문제에 파문혀, 오로지 하나하나 실체를 만들어 나가는 건축생활상의 모습 때문이다. 철저한 장인정신(匠人精神), 휴일이면 전화 방해가 없어 일에만 몰두할 수 있어 좋으면서 “원군! 일좀 하제이(경상도방언)”라고 하던 모습. 심지어 “찌양은 뭐하노. 나와서 일하레이” (당시 池淳을 지양이라고 부름).

우리의 젊은시절 청춘생활은 배기형의 건축생활에 무차별 휘말리었다.

그런 가운데도 점심, 야식의 생활을 함께하는 따뜻한 부드러운 낭만이 있었으며, 단성사 설계로 무료입장 할 수 있는 특전으로 명화감상을 곁들이며, 마치 배기형의 건축생활은 작업리듬에 따라 강행군 작업의 완급이 조절되는 드라마였다고 회상되며, 결코 후회됨이 없다.

작품 하나하나가 철저한 책임감으로 일관되어 완성되는 설계도. 따라서 인간의 신의를 가장 중시하는 배기형의 건축생활을 본받은 후진 건축가들이 많이 배출되었던 것이다.



실습생 시절의 필자가 대구제일모직 공장 현장답사 때 배기형선생과 함께 촬영한 사진(1956년)